

유럽기업 C.I.No. 외면

등록 과정중 신제품 공개 우려 ... 명칭 대체 추세

염료와 안료를 통칭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용어인 C.I.No.(Color Index Number)가 계속적인 신물질의 개발에 따라 점차 다른 명칭으로 대체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럽쪽 염안료 대메이커들인 BASF, Ciba-Geigy, Bayer, Sandoz, Hoechst 등은 현재 C.I.No.로 분류돼 있는 염안료에 있어 C.I.(Color Index) 등록을 하는 것이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 개발되는 신물질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91년경부터 시작됐으나 아직 국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이제까지 C.I.No.는 영국의 SDC, 미국의 AATCC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각 염안료 생산기업들이 새로운 염안료를 개발해 관련 물성자료를 제출하면 SDC와 AATCC가 Test를 한 후 신물질로 인정되면 관련 C.I.No.를 부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개발된 신물질이 공개되고 또 각 염안료 제조기업들이 같은 C.I.No.를 부여받아도 색깔 등에 있어 서로 미묘한 차이가 있어 등록을 꺼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염안료는 모두 C.I.No.별로 돼있고, C.I.No.가 없는 것은 Mixture 또는 Unknown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유럽쪽 동향이 국내에 알려지게 된 계기는 유럽 화학회사들이 환경처에 유해물질 관리에 관한 한국쪽 규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럽은 염료·안료 생산 환경관련 협회인 ETAD에서 염안료에 대한 Safety Data Sheet 기준을 작성해 줌으로써 염안료에 대한 독성 Test를 하는 반면 국내는 물질 독성 Test를 국가 공인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 도핑컨트롤센터, 한국화학연구소, 농약연구소, 국립환경연구원 등 5개소에서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일본·유럽 등에서 수입되는 염안료는 독성 Test를 마친 공인기관의 자료가 있으며, 대체로 이 자료검사로 끝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유럽쪽 염안료 대메이커들이 점차 C.I.No. 등록을 꺼려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새로 개발되는 염안료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한 국내에서는 좀더 과감한 정부의 대응책과 각 염안료 기업들의 혁신적인 R&D투자를 통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